

2014
박근혜 대통령

APEC · EAS · ASEAN+3 · G20

통합과 성장, 글로벌 비전을 향한 미래의 시작

-
베이징에서
브리즈번까지







2014.11.09

서울공항 출발

베이징 도착

2014.11.10

韓-중 정상회담

ABAC 전체회의

APEC 갈라만찬

2014.11.11

APEC 정상회의

韓-미국 정상회담

韓-호주 정상회담

2014.11.12

베이징 출발

네피도 도착

韓-인도 정상회담

EAS 갈라만찬

APEC 12

EAS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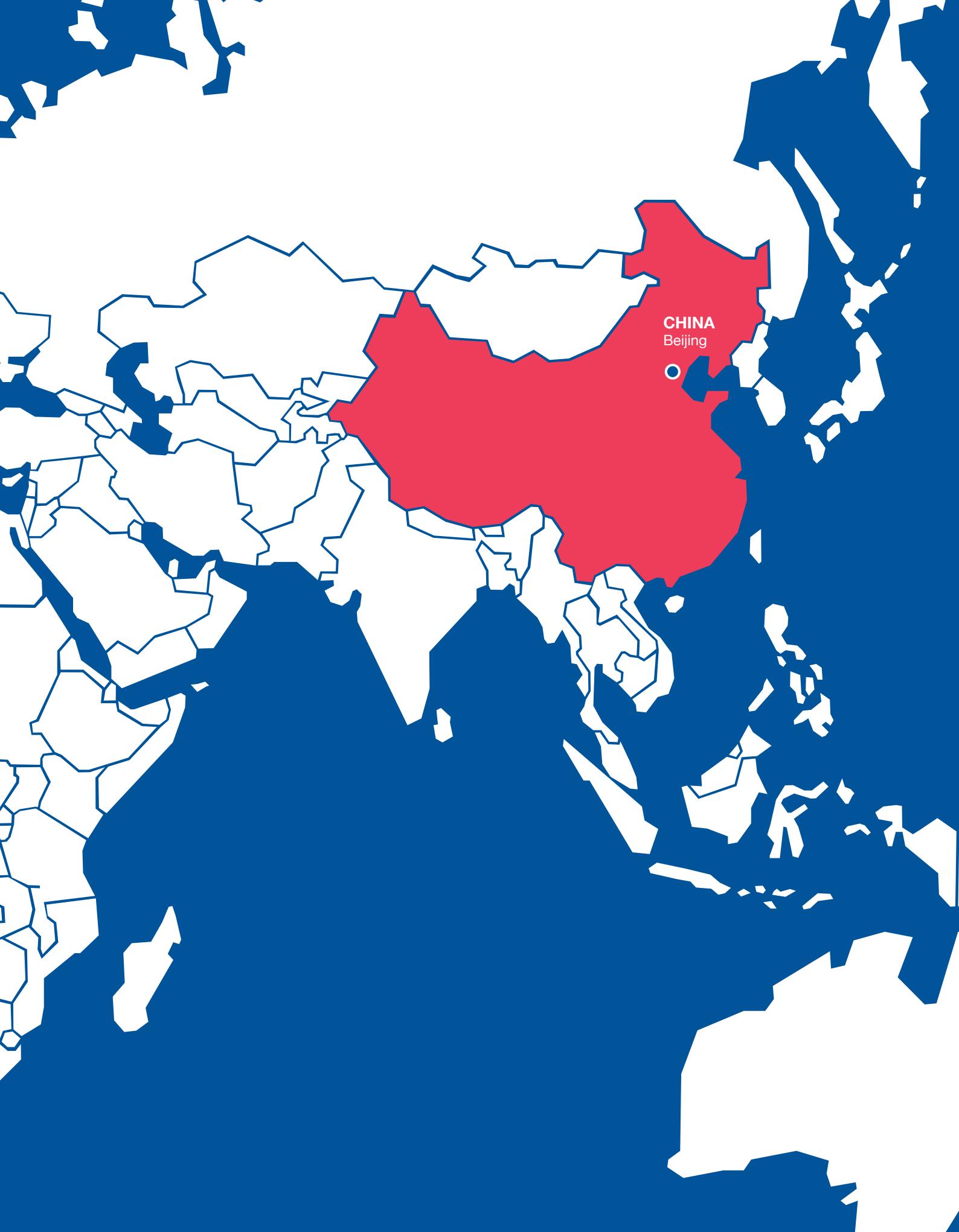
ASEAN+3 32

G20 42

**+
Summit
Conference** 52



-
- 2014.11.13 EAS 정상회의
韓 - 태국 정상회담
ASEAN+3 정상회의
네피도 출발
 - 2014.11.14 **브리즈번 도착**
韓 - 뉴질랜드 정상회담
 - 2014.11.15 정상 Retreat
G20 정상회의
 - 2014.11.16 G20 정상회의
韓 - 사우디 정상회담
브리즈번 출발



CHINA
Beijing

CHINA Beijing

정식 명칭은 베이징직할시[北京直轄市]이며, 약칭하여 '징[京]'이라고도 부른다.

화베이평야[華北平野] 북쪽 끝에 있으며, 동남쪽으로 보하이해[渤海]와 150km 거리에 있다.

전국시대에는 연(燕) 나라의 수도였으며, 초기에는 '지'라고도 불렸다. 후에 요(遼) · 금(金) · 원(元) · 명(明) · 청(清) 나라 등을 거쳐 중화민국 초기의 수도로서 800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1928년 시(市)로 정하고 이름을 '베이핑[北平]'으로 개칭하였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함께 명칭도 다시 '베이징'으로 고치고 수도로 정해졌다.

면적은 16,808km²이다. 행정구역은 동청구[東城區] · 시청구[西城區] · 충원구[崇文區] · 쉬안우구[宣武區] · 하이뎬구[海淀區] · 차오양구[朝陽區] · 평타이구[豐台區] · 스징산구[石景山區] · 팡산구[房山區] · 먼터우거우구[門頭溝區] · 통저우구[通州區] · 순이구[順義區] · 창펑구[昌平區] · 다흥구[大興區] · 화이러우구[懷柔區] · 핑구구[平谷區] 등 16개 구와 엔청[延慶] · 미원[密雲] 등 2개의 현(縣)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와 대외 교류의 중심지이며 국제화된 대도시다.



APEC

중국 베이징 / 2014. 11. 11

세계 성장의 엔진



APEC 정상회의

APEC은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며, 전 세계 GDP의 57% (43조불), 총 교역량의 49%(18조불), 전세계 인구의 37%(28억명)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이자, 세계 성장의 엔진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APEC 무대를 통해 우리나라는 91년 서울 APEC 각료회의를 통해 APEC 기본헌장에 해당하는 <서울 APEC 선언>을 채택하는 등 APEC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중국, 대만, 홍콩의 APEC 가입 협상을 주도하였며, APEC의 장기목표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구현을 위한 지역경제통합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2014년 APEC 정상회의 의제는 기본적으로 작년 의제를 발전시켜 그 연장선상에서,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이라는 대주제 하에 세부적으로는 지역경제통합 혁신·개혁·성장 연계성 강화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APEC 정상회의 1세션

지역경제통합 진전

-
중국 베이징 / 11월11일

박 대통령은 1세션의 선도발언을 통해 APEC의 1989년 출범 이후 25년간의 아·태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하고, 수준높고 포괄적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과 무역투자자유화의 가속화 등 APEC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 등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 자유화 촉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APEC정상회의 (2014년 11월 11일)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 챕터를 적극 지원]

- APEC에서 2006년부터 논의되어 온 FTAAP을 비전에서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
- FTAAP 실현에 장애가 되는 회원국간 FTA 협상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 주도로 수행해 온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의 2단계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

※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CBNI : Capabil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APEC 회원국들이 FTA 협상 경험과 분야별 정보 교류와 이해 제고를 통해 개도국의 FTA 협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2012-2014간 1단계 사업 시행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참여 연구 사업제안]

- GVC에 더 많은 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
- 우리나라가 APEC내 선·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

※ 우리가 제안한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GVC(Global Value Chain) 참여 연구 사업>

5개 산업(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농업, 보건산업)별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GVC 참여 사례연구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유

[다자무역체제를 중심으로 무역투자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강조]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극복을 위해 WTO 주도의 다자무역체제를 중심으로 DDA 협상의 회복 필요성 등 무역투자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
- 정보기술협정(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협상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
- 우리 IT업계의 수출 시장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APEC 정상회의 2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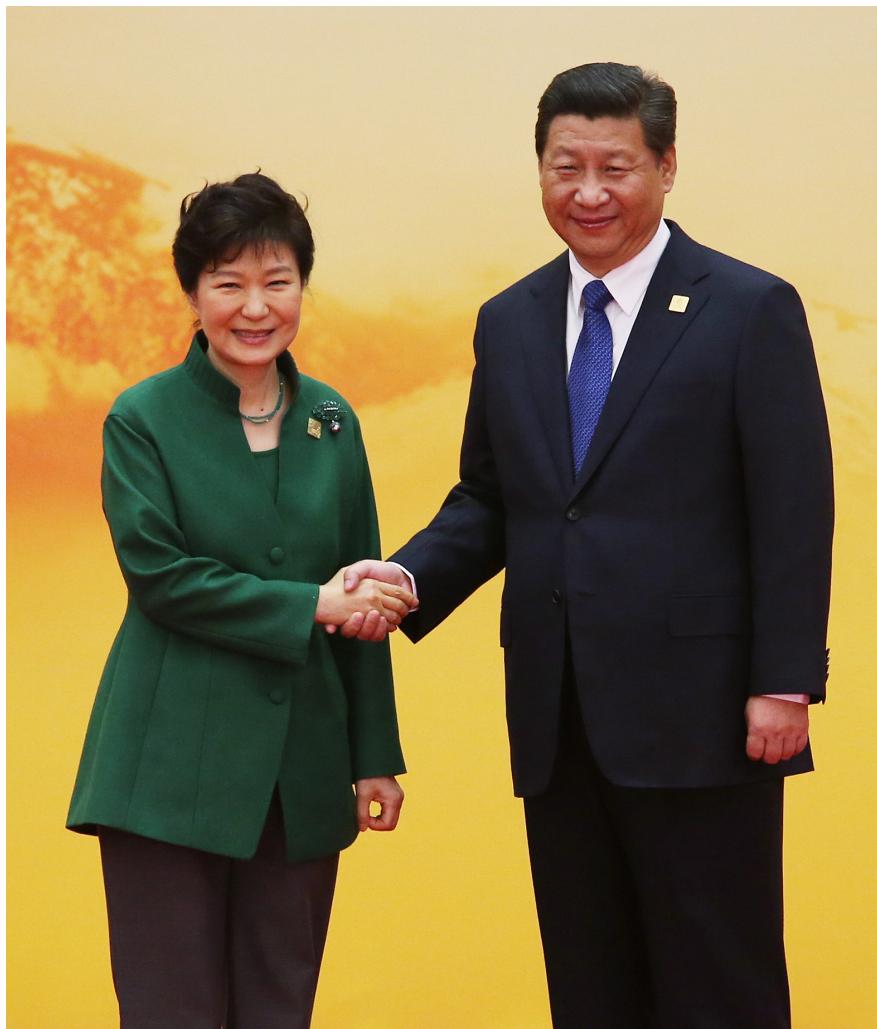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촉진

중국 베이징 / 11월11일

박 대통령은 금번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에서 아태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하여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경제 구조 개혁 및 혁신 의지를 표명하였다.



- APEC정상회의 (2014년 11월 11일)



- APEC정상회의 (2014년 11월 11일)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제안]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규제종량제, 규제일몰제, 통합규제정보포털 운영 등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역내 회원국들과 공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역내 모범 사례로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APEC 정상들은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과 경제 개혁을 통한 경제 구조 개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모범사례 공유와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을 다짐

APEC 정상회의 업무오찬

APEC 25년의 성과와 전망

중국 베이징 / 11월11일

[APEC 교통카드 도입을 제안]

- APEC의 무역 · 투자 자유화와 역내 통합을 촉진하게 〈APEC 교통카드〉 도입을 제안
- 역내 인적교류에 기여하고 우리 교통카드 업체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체결 확대를 제안]

- APEC 내 통관 시간 및 물류 비용 절감을 추진
- 한-중국 AEO MRA 체결에 따른 실제 통관 소요시간 절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소개
- 역내 무역의 원활화를 촉진하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AEO MRA(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AEO 제도는 관세청이 인정한 무역업체에 대해 통관시 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대국과 MRA 체결시 양국의 AEO 업체는 상대국에서 동일 혜택 향유

- APEC정상회의 기념촬영 (2014년 11월 11일)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亚太经合组织第二十二次领导人非正式会议 THE 22ND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中国 北京 2014年11月11日

BEIJING, CHINA 11 NOVEMBER 2014



기타 일정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중국 베이징 / 11월10일

- 박 대통령은 11.10(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식량, 에너지 안보 해결방안으로서 민간 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ABAC과의 대화 참석을 통해 우리 교역의 66%, 외국인투자의 60%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의 주요 기업인들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 우리 경제정책을 소개하여 <기업하기 좋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2014년 11월 10일)



A map of Southeast Asia showing country boundaries. Myanmar is highlighted with a blue fill and has its name and capital, Naypyidaw, labeled on it.

MYANMAR
Naypyidaw

MYANMAR

Naypyidaw

미얀마의 수도, 'Nay Pyi Taw'로 표기하기도 한다. 2005년 11월
미얀마 군사정부가 수도를 양곤(Yangon)에서 핀마나(Pyinmana)로
이전한 뒤 2006년 3월 새로운 수도의 이름을 네피도로 정하였다.
네피도는 황도(皇都)를 의미한다.

행정구역상 만달레이(Mandalay)구 핀마나 읍에 위치하며,
양곤에서 북쪽으로 약 320km 떨어져 있다. 핀마나는 오래전부터
미얀마 군대의 거점 지역이었고, 이와 같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이곳으로 수도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여, 2005년 11월에 먼저
중앙 정부의 각 부처를 옮기고 이어서 11개 군부대와 나머지
11개 정부 부처를 옮겼다. 그러나 수도 이전의
합리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전략적으로는 항구도시인 양곤보다
수도로서 지리적 위치가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여러 주의 경계에 접해 있어 화물 수송에 중추 지역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은 미얀마의 주요 인종인 버마인과
중국인, 그 밖의 소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는 불교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며 기독교와 이슬람교도 믿는다.



EAS ASEAN+3

미얀마 네피도 / 2014. 11. 12 - 11. 13

미얀마 네피도 / 2014. 11. 13

정책 대화의 장

EAS 정상회의



우리나라는 EAS 출범이래 환경, 에너지, 재난관리 등 동아시아 차원의 실질적 협력문제 및 지역·글로벌 이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EAS가 동아시아 정상차원의 전략적 협의의場으로 발전하는데 적극 기여해 왔다.

동아시아 공동체

ASEAN+3 정상회의



ASEAN+3는 1997년 ASEAN 창설 3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공동극복을 위해 한·중·일 3국 정상이 동시에 초청됨으로써 발족한 이래, 정상회의 산하에 외교, 경제, 금융 등 20여개 분야, 60여개 회의체가 운영되고, 年100개 이상의 협력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역내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협의체이다.





EAS 정상회의

진화하는 협의체

- 미얀마 네피도 / 11월13일

박 대통령은 여타 정상들과 재난관리, 환경 및 야생동식물 보호, 에볼라 확산방지, 테러리즘 대응 등을 포함한 주요 국제 및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EAS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야생동식물 불법거래 퇴치에 관한 EAS 선언]

- 한반도에서 야생동식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인 비무장지대를 세계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여 남북한이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생명과 평화의 통로를 만들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

[신속재난대응에 관한 EAS 성명]

- 재난 발생직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국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신속재난대응에 관한 성명 채택을 환영
- 2015년 4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7차 세계물포럼」을 통해 아시아지역이 특히 취약한 물 관련 재해에 효과적인 대응 및 재난 후 회복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임을 언급



- EAS 정상회의(2014년 11월 13일)

[에볼라 발명 및 확산에 대한 지역적 대응에 관한 EAS 공동 성명]

- 에볼라 발병과 확산에 대한 지역적 대응 강화를 위한 EAS 공동성명을 지지
- 우리 정부가 에볼라 사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차원에서 피해지역에 보건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 / 오늘(11.13) 피해 지역 실사를 위한 선발대가 현지로 출발하였음을 언급
- 2014년 2월에 출범한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이 전염병의 예방, 탐지, 대응에 대한 포괄적인 공조체제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2015년 2차 GHSA 고위급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소개하고, EAS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집단의 폭력과 잔혹성에 대한 EAS 공동성명]

- 인류의 적인 테러리즘에 맞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해야함을 역설
- 동아시아는 해양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양 안보의 보장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
- 우리나라의 해적 퇴치를 위한 노력과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 탐색을 위한 국제적 수색 구조에 동참해왔다고 설명



- ASEAN관련 정상회의(2014년 11월 12일)

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

-
미얀마 네피도 / 11월13일

2014년 한·일·중 조정국 정상으로서 ASEAN 의장국인 미얀마와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ASEAN+3 차원의 협력발전 현황과 미래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ASEAN+3의 비전 제시]

- ASEAN+3가 다른 협력체와 차별화하면서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길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
- 우리정부가 2014년 12.11(목)-12(금)간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한-ASEAN특별정상회의를 ASEAN+3 협력과 ASEAN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소개

[금융·보건 분야 등에서의 역내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야함을 강조]

-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SEAN+3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의 도약 필요
- 자본유출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을 지속적으로 강화, AMRO의 국제기구화 절차 완료 강조
- ASEAN+3가 새로운 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이런 협력의 관행과 협력 기반을 잘 활용해야함을 강조

Nay Pyi Taw, Myanmar, 13 November 2014



- ASEAN+3 정상회의 기념촬영 (2014년 11월13일)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 가속화를 위한 <동아시아 비전그룹 (EAVG*)>활동]

- 금년에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 (EAVG II**)>의 제안 중 핵심사업 25개가 선정되었음을 환영
- 2015년 ASEAN+3 정상회의에 동 사업별 이행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협조를 촉구

* EAVG I : 한국의 제안으로 1999년 설립. 2001년 정상회의시 평화·번영·발전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제시하고, 6개 분야 협력강화 조치를 제안해 ASEAN+3 분야별 협력의 기틀을 마련

** EAVG II : 2011년 출범. 2012년 ASEAN+3 정상회의시 <2020년까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출범>비전을 주축으로 한 59개 사업을 제안. 현재 핵심적인 25개 사업을 선정하여 각 사업별 이행계획을 수립할 주도국가 선정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

[ASEAN 연계성 증진에 적극 기여]

- 내년 ASEAN 공동체 출범은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성장과 번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언급
- 연계성 대표사업(flagship project)으로 <메콩강 내륙수운 교통연구사업>등을 ASEAN측에 제안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ASEAN이 보여준 협력증진과 갈등 해소 및 신뢰구축의 모범을 동북아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 설명
- 지난달 서울에서 <동북아평화협력 포럼>과 정부차원(track 1)의 <동북아 평화협력 회의>가 개최되었음을 소개
- 협력의 공감대로 동북아 3국간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

[북한의 비핵화의 온전한 달성을 기대]

- 북한의 비핵화의 온전한 달성,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동아시아의 평화의 동력이 될 것임을 지적하고,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



- ASEAN+3 정상회의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함께
(2014년 11월13일)



- ASEAN+3 정상회의 (2014년 11월13일)



AUSTRALIA
Brisbane

AUSTRALIA

Brisbane

브리즈번(Brisbane)은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주의 주도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전체에서는 세 번째로 많다. 브리즈번 대도시권의 인구는 220만 명으로, 브리즈번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 퀸즐랜드 광역도시권의 인구는 300만 그 이상이다. 원래 유럽인들이 건설한 브리즈번 중심 업무 지구는 모터만 입구에서 약 15 kilometres (9 mi) 떨어진 브리즈번 강이 굽혀지는 안쪽에 위치 해 있다. 대도시권은 브리즈번 강 골짜기와 모터만, 그레이트디바이딩 산맥 사이 범람원을 따라 발전했다. 브리즈번 데모님은 브리즈버나이트(Brisbanite)라고 부른다.

18세기 유럽인들의 탐험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호주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기후가 따뜻하고 특히 브리즈번 강 주변의 토양이 비옥하여 농업이 발달하였고, 19세기부터 대량 이주가 시작되었다. 19세기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인구급증으로 분리, 독립하면서 상공업도시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현재는 호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Australia 2014

MEXICO

MYANMAR

NEW ZEALAND

ARGENTINA

RUSSIA

G20

Australia 2014

호주 브리즈번 / 2014. 11. 15 - 11. 16

G20 종합적 성장전략



G20 정상회의

위기극복 이후 화두가 위기극복에서 성장으로 이동하면서 의장국 호주는 금년 핵심의제로 <성장전략>을 추진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2013년 G20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금번 정상회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채택됨은 물론, 그 실행방안으로 <G20 종합적 성장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여 한 것이다.

2014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전 세계가 직면한 저성장·고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장의제에 집중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G20 정상회의 Retreat 세션

과감한 규제 개혁의 노력

- 호주 브리즈번 / 11월15일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규제개혁 관련, G20 정상들에게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 노력과 사례 및 경험을 공유했다.

[규제개혁에 관한 3가지 접근법 소개]

- 국민적 공감대 형성:<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경험 설명. 이 과정에서 손톱 및 가시 같은 규제들을 포함해 오랫동안 묵은 규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소개
- 국민과 지속적 소통:국민적 공감대가 규제개혁의 추진력으로 이어지도록 <규제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 강조
- 시스템화: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 강조 <규제 길로틴>, <규제비용총량제>, <규제 일몰제> 확대 등 소개

[Top-down 방식의 <규제 길로틴> 도입 강조]

- 기존 건별(item by item)이나 상향식(bottom-up) 규제 개혁에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향식(top-down) 일괄 정리 방식의 <규제 길로틴>제 도입을 설명

- G20정상회의 기념촬영 (2014년 11월 15일)



G20 정상회의 업무만찬

무역확대를 통한 동반성장

-
호주 브리즈번 / 11월15일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업무 만찬에 참석하여,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이 필요한 세계경제에
“창조경제”를 제안, 개도국에 대한 “개발” 의제의
본격적 논의를 강조했다.

[무역을 통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성장 강조]

- 한국의 스마트폰을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과정에 참여해 만들어낸
부가가치의 합으로서 ‘Made in Korea’ 가 아닌 ‘Made in the World’ 라고 소개
-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에 대해 개도국 성장 뿐 아니라 새로운 수요
창출로 세계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
-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등 무역확대를 통한 개도국과 동반성장 강조

[창조경제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제안]

-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제시 - 세계경제의 나아갈 방향(navigator)제시
-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고, 과학기술, ICT, 산업,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G20 회원국간 창조경제 구현 경험의 공유(Peer-Learning)를 제안



G20 정상회의 제2세션

세계경제의 회복

- 호주 브리즈번 / 11월16일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G20 정상들과 세계경제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최소화를 위한 G20 정책 공조 강조]

-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
-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의 쟁탈 현상은 일부 신흥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
- 자국 여건만을 고려한 선진국의 경제 및 통화정책은 오히려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逆파급효과 (spillback)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
- 각 국의 통화정책이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 되어야 하며, G20이 이러한
정책공조(harmony)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

[국제금융시장 위험에 대비해 <금융안전망> 정비를 주문]

- 금융불안 재발에 대비한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s)의 정비 필요성 강조
- 제1의 방어선으로서 <IMF 쿠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
- 제2의 방어선으로서 지역금융안전망(RFA)의 역할 강화와,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상호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 언급



- G20정상회의 (2014년 11월 16일)

G20 정상회의 제3세션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조성

호주 브리즈번 / 11월16일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조성의 중요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하고 G20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를 위해 GCF 재원조성 촉구]

-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
-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 발휘를 위해 개도국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GCF의 역할 및 조속한 재원조성이 중요하다고 역설

[우리나라의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사례 소개]

-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보아야 한다는 인식 전화의 필요성을 제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과제이자 창조경제의 사례로 제시



- G20정상회의 단체사진 (2014년 11월 16일)

SUMMIT CONFERENCE

- 1. 韓-중국 정상회담

중국 베이징 / 2014. 11. 10

- 2. 韓-미국 정상회담

중국 베이징 / 2014. 11. 11

- 3. 韓-호주 정상회담

중국 베이징 / 2014. 11. 11

- 4. 韓-인도 정상회담

미얀마 네피도 / 2014. 11. 12

- 5. 韓-태국 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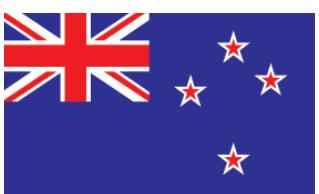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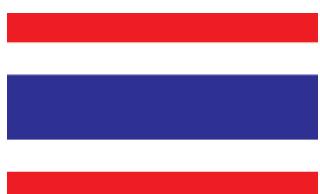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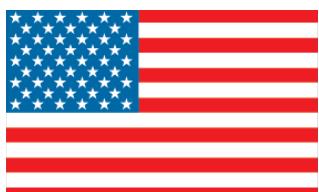
미얀마 네피도 / 2014. 11. 13

- 6. 韓-뉴질랜드 정상회담

호주 브리즈번 / 2014. 11. 14

- 7. 韓-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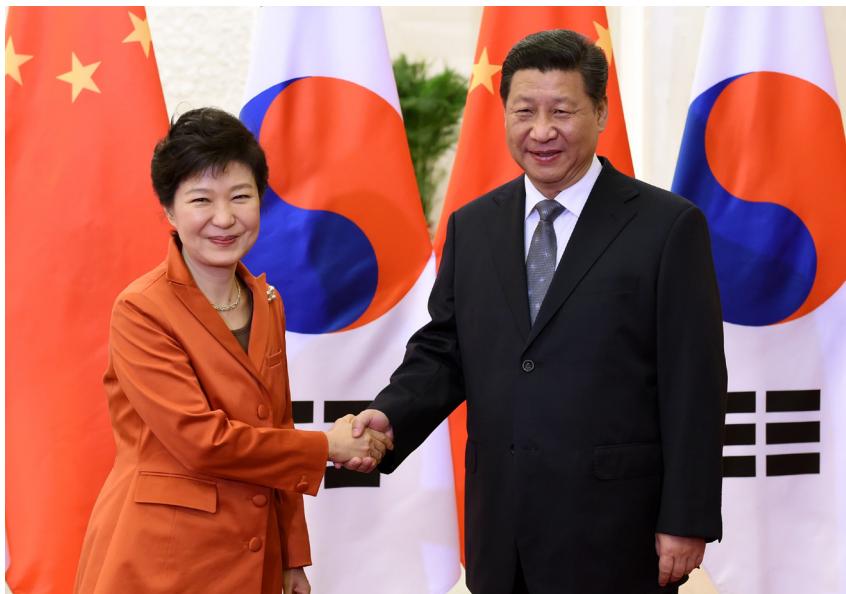
호주 브리즈번 / 2014. 11. 16



APEC 정상회의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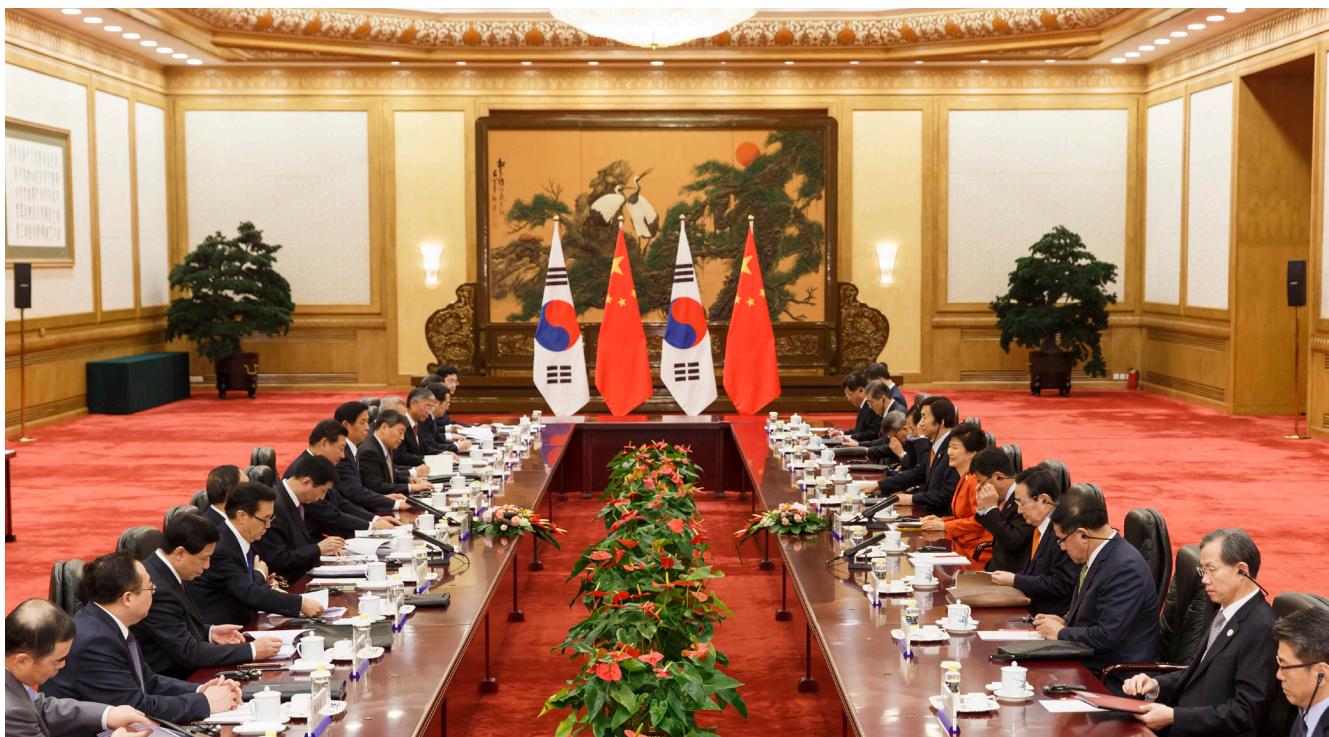
韓-중국 정상회담

중국 베이징 / 11월10일



- 韓 · 중국 정상회담 (2014년 11월 10일)

박 대통령은 11월10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상회담에서는 작년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약 2년의 기간 동안 양국 정상간 상호 방문 교환 등 양국 관계가 심층 깊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 · 중 FTA 등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로 인해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22 개 챕터의 FTA를 타결했다.



- 韓 · 중국 정상회담 (2014년 11월 10일)

APEC 정상회의 계기

韓-미국 정상회담

- 중국 베이징 / 11월11일

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월11일 국제회의센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한 비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과 에볼라바이러스 대응, 한·미·일 공동보조의 필요성,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 등에 관한 전반적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입장과 한미의 공동 대응이 중요함에 인식을 같이 했다.



- 韓·미국 정상회담 (2014년 11월 11일)



- 韩· 미국 정상회담 (2014년 11월 11일)

APEC 정상회의 계기

韓-호주 정상회담

- 중국 베이징 / 11월 11일



- 韓·호주 정상회담 (2014년 11월 11일)

박 대통령은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韓-호주
FTA 비준 문제 등 양국간 실질협력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韓·호주 정상회담 (2014년 11월 11일)

EAS 정상회의 계기

韓-인도 정상회담

- 미얀마 네피도 / 11월12일



EAS 정상회의 참석차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했던 박 대통령은 미얀마 국제 회의센터(MICC)에서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5월 출범한 인도 신 정부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 韓 · 인도 정상회담 (2014년 11월 12일)



- 韓 · 인도 정상회담 (2014년 11월 12일)

EAS 정상회의 계기

韓-태국 정상회담

- 미얀마 네피도 / 11월13일



EAS 정상회의 참석차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미얀마 국제회의센터(MICC-1)에서 빤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pull-aside)을 갖고, 양국 현안,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韓 · 태국 정상회담 (2014년 11월 13일)



- 韓 · 태국 정상회담 (2014년 11월 13일)

G20 정상회의 계기

韓-뉴질랜드 정상회담

- 호주 브리즈번 / 11월14일

G20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한-뉴 FTA타결선언 공식 기자 회견을 갖고 양국간 FTA협상의 타결을 선언 했다. 이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이외에 기존 FTA에 비해 보다 실질적인 농림수산분야 협력 및 인력이동 약속을 포함했다.



- 韓 · 뉴질랜드 정상회담 (2014년 11월 14일)



- 韓 · 뉴질랜드 정상회담 (2014년 11월 14일)

G20 정상회의 계기

韓-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 호주 브리즈번 / 11월16일

박 대통령은 브리즈번 컨벤션 센터에서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제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한-사우디간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 방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적 변혁기의 진통을 겪고 있는 중동지역내 정세 안정자로서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의 역할을 평가하고, 한국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 韓 · 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2014년 11월 16일)



- 韓 · 사우디아라비아 정상회담 (2014년 11월 16일)

정상회담 일정 방문 선물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 정상이 한국을 방문할 때면 선물을 증정하거나 받는다. 일국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대통령의 선물은 정상 간의 인간적 교감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하며, 대통령 재임기간 중 외교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



- APEC기념공예품(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서적 설문해지 _ 한자병기(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구바욱지 사원 벽화 사본(페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미얀마 전통악기 사웅 _ Saung(페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풍경사진(캠벨 뉴먼 퀸즈랜즈주 총리)

ASEAN +3 정상회의 모두 발언

미얀마 네피도 / 11월13일

작년에 이어 ASEAN+3 정상회의에서
여러 정상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페인 세인' 대통령님과 미얀마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EAS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연이어 마라톤
회의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아세안 지도자 여러분의
열정과 체력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체력 소모를 줄여드리기 위해
한국은 이번에는 한-ASEAN 정상회의를 열지 않겠습니다.
대신 12월에 부산에서 특별한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한국에 오시면 여러분의 체력을 일거에 회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아세안 정상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그 동안 ASEAN+3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통한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ASEAN+3 비상쌀 비축사업>을
통해서 역내 식량안보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CMIM의 효과 제고를 위해
설립을 한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국제기구화를 위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ASEAN+3가 다른 협의체와 차별화하면서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평화와 안정, 번영의 동아시아를
만드는 유익한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ASEAN+3 정상회의 모두발언

2014

박근혜 대통령

APEC · EAS · ASEAN+3 · G20 정상회의

발행일 2015. 1.